

미 수은 최근 동향 보고

(2014. 7. 15)

워싱턴 사무소

□ 미 수은 직원 4명,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

- 미 수은은 특정 기업에 연방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조사 중이던 4명의 직원을 최근 해고 혹은 정직 처분한 것으로 알려짐.
- 미 수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수은 단기 무역금융 부서에서 근무했던 Johnny Gutierrez는 플로리다 소재 기업 앞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되는 건설장비와 관련, 미 수은의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.
- 동 사건의 연루된 4명의 직원 중 Gutierrez가 관련기업앞 금융지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, 다른 두 명은 동 기업과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, 마지막 한 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. 아직까지는 Gutierrez를 제외한 다른 3명의 신원은 확인 되지 않고 있음.

□ 네덜란드 앞 미국산 발전설비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승인

- 지난 6. 18일, 미 수은은 Energyst B.V. 앞 미국 Caterpillar사의 발전설비 수출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Rabobank International of Utrecht가 제공하는 총 1,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승인함. (미 수은은 동 거래로 미국 내 약 1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)
- 네덜란드 브레다에 소재한 Caterpillar 장비 임대 사업체인 Energyst는 남아메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포함한

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전력 프로젝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장비를 수입하며 전 세계 어디나 신속하게 수송되어 플랜트 현장에 임시 전력을 즉각 공급할 수 있음.

□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앞 수출 지원 10억 달러 돌파

- 지난 6. 3일, 미 수은은 2014년 회계연도 개시 후 7개월 만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앞 미국 수출에 대한 지원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함.
- 이는 미 수은 Fred P. Hochberg 은행장과 에너지부 장관 Ernest Moniz가 참석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U.S. Africa-Energy Ministerial에서 발표되었으며, 동 행사를 위해 30명이 넘는 아프리카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을 포함한 기업가 및 정부 관리 등 350여 명이 참석함.
- 미 수은은 2014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지금까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앞 미국 수출 지원을 위해 100개 이상의 관련 금융을 승인하였으며, 188건을 승인하였던 2013년 회계연도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미국산 항공기 및 헬기 수출 지원 목표 상향 조정

- 미 수은은 지난 5. 21일, 미국산 비즈니스 항공기 및 헬기 수출 지원을 위해 2014년 회계연도 말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고 발표함.
- 미 수은의 동 사업 관련 첫 목표치였던 10억 달러지원은 예상 기간보다 10개월이나 빠른 2013년에 달성한 바 있음.
- Hochberg 은행장은 "미 수은의 미국산 비즈니스 항공기 및 헬리콥터 수출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금융지원 목표치는 이미

달성하였고, 올해 말까지 목표치의 두 배인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예상하고 있다"고 언급함.

□ 중소기업 고객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발표

- 미 수은은 지난 5. 19일, 2,1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함. 동 조사를 통해 미 수은이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설문에 응한 많은 수의 고객들은 지난 5년 동안 미 수은의 수출지원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밝힘.
- 설문의 응답자 중 65%가 지난 5년간 자신의 회사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했고, 64%는 미 수은이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동의함. 그리고 응답자 중 약 55%는 미 수은의 도움 없이는 많은 수출 기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함.

□ 경쟁력 보고서 발표¹⁾

- 지난 6. 25일, 미 수은은 연례 경쟁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.
- Fred P. Hochberg 총재는 서문에서 "세계시장에서 'Made in America'는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이지만, 수출 금융 시장에서 더욱 더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외국의 경쟁 수출업자들 인하여 미국 내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"고 강조함.
- 동 보고서에서 미 수은은 2013년 미국이 기업에 제공한 수출 신용 지원보다 한국, 일본, 중국이 각 국가의 기업에 제공한 수출 신용 지원이 훨씬 더 많았음을 강조하며, 수출 금융에서 한국, 일본, 중국의 빠른 성장을 주목함.

1) 상세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송부 예정